

Paper Session 1	발표일시(한국시간): 2021.12.27(월) 11:00~12:30
Navigating Contested Waters: Skillful Nurturing and Harmonious Co-existence	

논문 1

장벽을 허물다, 과거와 현재: 비구니들의 국제적 협력의 발자취를 찾아서

하샤 과탐(Harsha Gautam) /번역 박미선

요약문:

이 논문은 5 세기에 있었던 중국의 최초의 비구니 국제협력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면서, 비구니들 간의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혜과(Seng-kuo) 스님, 정음(Hui-kuo) 스님과 같은 중국 비구니 전기에 의하면, 비구니 승가가 없었던 중국에서 구족계 (upasampadā, higher ordination) 문제는 중국 비구니들에게 큰 관심사였다. 이 문제는 카슈미르 출신의 존경받는 인도 비구인, 구나발마(Gunavarman)의 지도와 도움으로 서기 429 년, 스리랑카의 여러 비구니들이 중국 비구니들에게 구족계를 수여하기 위해 남송시대의 수도인 난징으로 왔을 때 해결되었다. 싱할라 비구니들이(확인요, 싱할라가 싱할라왕조를 의미하는지 확인이 필요함) 중국의 비구니 승가에 구족계를 줌으로 해서, 법적인 유효성을 제공한 것은 물론, 싱할라 비구니들이 속한 상좌부파 (Theravādin school) 대신 설일체유부파 (Sarvāstivādin school)를 기울어져 있던 중국 규범에 맞게 계를 주었다. 서로 다른 나라와 부파에 속한 비구니들 간의 정중하며 강한 협력의 역사적 선례는 여러 나라의 비구니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현재의 필요성을 이해하는데 토대를 마련하였다.

인도에서 불교의 부흥을 둘러싼 사회-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상황 속에서 비구니상가가 최근 재등장하는 동안, 비구니상가는 심각한 여성혐오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마침내 이들은 보다 체계적으로 확립된 승려 전통을 가진 다른 나라 비구니들로부터 힘과 용기를 찾고 있다. 이 논문은 동시대의 인도와 태국 비구니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인도에서 비구니 승가를 강화하는데 샤카디타와 같은 단체가 선도하는 국제적 협력의 결과와 노력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협력이 다양한 불교 의식과 수행을 익히며 점점 성장하는 인도의 재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 협력의 과정과 인도의 고대 불교 성지의 부활과의 잠재적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발표자 약력:

하샤 과탐: 오스틴 텍사스대학 종교학 박사과정 중. 뉴델리 자와할랄 네루대학교 역사연구센터에서 고대 인도 역사 전공 문학석사 및 철학석사. 철학석사학위 논문에서는 초기 불교의 승려 전통에서 비구니와 제자 단체의 소재를 규명했다. 하샤 과탐은 승가에서 비구니 역할에 중점을 두고 율장 (vinaya) 전통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계를 지키는 비구니들의 몰락: 바라이 죄 비교 연구 (Defeat of the Disciplined Bhikkhunis: A Comparative Studies of the Pārājika Offences)」를 제 80 회 인도 역사 학회에서 발표했다.

논문 2

하와이의 여성 불자: 기로에서의 성찰

카르마 렉셰 쏘모(Karma Lekshe Tsomo) /번역 김은경

요약문:

19 세기 후반부터 하와이에 정착한 일본인 이민자들은 대부분 계약직 노동자들이었고 대다수가 불교 신자로 밝혀졌다. 당시 불교는 하와이에서 소수 종교였고 이해도도 낮았다. 플랜테이션 노동자들은 우상숭배자로 비난받을 것을 우려해 집안에 있던 제단과 부처의 이미지들을 천으로 가려야 했다. 기독교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일본인 이민자들이 본국에서 했던 결혼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호놀룰루 항에 도착하자마자 기독교 식으로 다시 결혼식을 할 것을 요구했다. 1889 년, 하와이에서 정토종 최초의 사찰이 세워졌다. 1897 년, 일본인 이민자 사회는 일본에 있는 흥완지 본부에 자신들의 정신적 필요에 따라 포교사를 파견하고 문화적 화합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요청하였다.

하와이에 전해져 온 일본의 불교 종파나 문화적 전통은 본국의 것들과 비슷한 점이 많지만, 서서히 하와이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각 종파마다 고유의 독특한 유산과 제도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사찰의 안주인, 자원봉사자, 또 신도로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수적인 공헌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거의 전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은 하와이, 특히 정토종인 흥완지 또는 조도 신슈에서 일본 불교의 성립과 깨달음에 대한 여성들의 공헌을 탐구한다. 일본 불교도들은 하와이에 사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보존 및 신도들의 사회적 적응과 영적인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후지카이로 알려진 여성 불자 단체들은 청소년 단체, 염불 단체, 다도 및 꽃꽂이 수업, 사회복지 사업, 체육 행사, 병원 방문, 사찰 건립 모금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본의 불교 문화 유지를 도왔으며, 이들은 꼭 필요한 조직들이었다. 제 2 차 세계 대전 중 일본어 교사들과 스님들이 약식 수용되어 감금되고 상당수가 미국 본토의 특별 수용소로 보내져 재판 없이 무기한 투옥되었다. 처한 환경에 적응하고 다른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하와이 여성 불자들의 역사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주제이다.

일본 불교가 하와이 현지화되면서 여성의 역할은 점차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 여성이 가정에서 헌신하는 중요한 역할, 특히 ‘자녀를 위한 자애롭고 숙련된 양육과 교육’은 불교 기관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공헌으로 이해되며, 당연히 불교적 가르침을 주창하는 가치를 지닌 후대를 낳는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마도 여성들이 흥완지에서 리더십과 지도력력을 인정받게 되면서 이들 기관에서 행정 중심의 권력과 구별되는 불교 여성 협회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다. 이미, 여성 불자들은 하와이 섬 전역에 있는 사찰과 종교 포럼에서 좀 더 가시적인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수년 동안 하와이의 여성 불자들은 잠재적인 정치적, 사회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불자로서의 정체성과 일본인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꾸준히 주장함으로써 종교적 청렴성, 독립성, 상호의존성에 대한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다.

발표자 이력:

카르마 렉셰 쏘모(Karma Lekshe Tsomo) 스님은 미국 샌디에이고대 신학·종교학부 교수로 불교 사상과 문화, 불교 속의 여성, 깨달음의 이미지, 죽어가는 것과 죽음, 사회 정의 등의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스님의 연구 관심사는 불교 페미니스트 철학, 불교와 생명윤리, 비교종교 윤리, 불교적 초국가주의, 불교 사회 이론 등이다. 세계 여성불교협의회(샤카디타) 창립자로서 회장을 역임하였고, 개발도상국 여성 교육을 후원하는 비영리단체인 잠양 재단의 설립자로, 현재 이사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불교 전통 속의 여성들(Women in Buddhist Traditions)’, ‘야마의 턱 속으로(Into the Jaws of Yama)’, ‘불교, 생명윤리, 그리고 죽음(Buddhism, Bioethics, and Death)’, ‘고독의 자매들(Sisters in Solitude)’, ‘여성을 위한 사찰 윤리의 두 가지 전통(Two Traditions of Monastic Ethics for Women)’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여성 불자들에게 대한 수많은 글들을 써 오고 있다.

논문 3

요기와 요기니들을 위한 조연과 경책: 14 세기 티베트 문헌에 나오는 부도덕한 성적행위에 대해

빠마 칸도(Pema Khandro) /번역 유정스님

요약문:

미투운동의 용감한 목소리에 이어, 티베트불교에서 여성과 불교의 성에 관한 많은 질문들이 성윤리에 관한 논쟁 안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쟁 속에 티베트 불교 토착 문헌 속에 나타나는 논쟁의 역사는 빠져 있는 것 같다. 불교 판뜨라에서의 여성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대부분은 자코비(Jacoby, 2014a)와 게일리(Gayley, 2016)의 연구 같은 현대 시기의 연구에서 나온 것이다. 티베트의 영적배우자에 대한 이들 뛰어난 연구가 있지만 그 속에서 학자들은 경전 속에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티베트 배우자 문화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비금욕 판뜨라 수행자들의 성윤리의 문제를 다루는 초기 문헌들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 그 속에 여성에 대한 실천 지침과 성적 부도덕에 대한 우려가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다키니 마음의 정수』 (The Seminal Heart of the Dakini) 라는 14 세기 닝마빠의 문헌을 분석한다. 이 문헌군은 여성을 티베트의 비밀스러운 수행 전통, 즉 족첸 전통을 전수하고, 가르치고, 기록하고, 수행하는 주요 주체로서 소개하는 최초의 문헌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철학 문헌 속에서도 나타나고 또 빠드마삼바바와 예췌 초겔 간의 대화의 글 속에도 나타나는 성적 부도덕에 대한 논변을 부각하기 위해 특정 구절들을 추려 소개하겠다.

전반적으로 본 논문은 이 경전 속에 기술되고 있는 성적 부도덕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여성이 처한 어려움, 그들에게 주어진 조언들을 고찰한다. 주요 구절을 번역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제시함으로써 두가지 점을 주장하겠다. 첫째로 티베트 판뜨라가 티베트의 남성중심주의와 여성혐오에 기인한다고 지나치게 단순화한 식민주의적 해석에 대해 비판을 가하겠다. 이에 대한 대안적 관점으로, 초기 티베트 본래의 판뜨라 문화는 복잡하고 여러 세력이 각축하는 환경이었으며, 비금욕적 수행법을 엄격한 한계 속에 두면서 여성을 종속시키기도 하고 동시에 숭상하기도 했음을 제시하겠다. 두번째로는 이 문헌 속에 등장하는 성적 부도덕에 대한 초기의 해석들을 고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 이점은 현재의 논변에 대하여 역사적 관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불교 내의 여성, 티베트의 영적 배우자, 불교의 섹슈얼리티와 닝마빠의 역사에 대한 논의에 역사적 맥락을 부여할 것이다.

발표자 약력

빠마 칸도: 불교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학부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미국 버지니아 대학에서 티베트학으로 석사학위를 하였으며, 현재 불교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있다. 풀브라이트-헤이스 장학금을 수혜하였고, 포드재단 펠로우이다. Ngakpa International 을

설립하였고, 그곳에서 운영하는 불교학연구소, 다키니 마운틴 수행센터, 그리고 요기 의학 센터를 창립하였다. 라마로 인정받았으며 닝마빠와 까규 전통의 법맥을 전수받았고 1999년부터 국제적 커뮤니티를 이끌어오고 있다. 불교학연구소를 통해 불교철학과 수행에 대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